

우리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천 결의문

의안 번호	
----------	--

제안일 : 1997년 11월 22일

제안자 : 송규범의원외 12인

1. 주 문

우리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 안 이 유

- 우리는 지금 경제의 대란속에서 지난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의 경제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속에 다변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약한 산업구조는 그 경쟁력을 잃고 그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으며,
- GNP만불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치성 과소비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급기야 우리의 경제는 경제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 우리의원 모두는 지난날의 잘못을 자성하면서 우리의 경제는 우리의 손으로 세우고야 말겠다는 구국의 신념을 다지기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함.

우리의 경제를 되살리기위한 실천 결의문

6.25전쟁의 폐허속에서 온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일구어낸 선진입국의 견실한 우리의 경제가 사회전반에 만연된 무분별한 과소비풍조에 의해 경제주권마저 상실하게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의원 모두는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우리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 우리는 소비가 소득을 앞지르는 낭비성 생활의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1인 1통장 더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 우리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및 여행을 자제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이고 해외여행등으로 남아있는 모든 외화는 은행에 저축한다.

하나 - 우리는 시정운영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말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나 -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시책에 18만 시민과 더불어 적극 참여함은 물론, 범 시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1997년 11월 25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